

# 2022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4. 26.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3	-	11	○		

### o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정의식 위원, 천경숙 위원  
정경모 위원, 유환익 위원, 김희중 위원,  
문해주 위원, 이현숙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정내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	-	-	9	-	9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9	-	-	9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4월은 과학의 달이고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계의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에서 각종 행사나 전시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과학의 날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새 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는 만큼 연합뉴스TV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보도해주길 희망합니다.(문해주위원)</p>	<p>4월 '과학의 달'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출근길 인터뷰'에서 관련 행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걸음걸이 분석기술 고도화, 기술유출 관련, 스마트팜 기술, 서비스로봇,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상당수 보도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포함한 관련 기사들을 좀 더 자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t;22.4월 조치&gt;</p>	<p>'22.3월</p>
<p>보도</p>	<p>&lt;03.02 러시아 7개 은행과 거래 중단...러 국고채 투자도 금지&gt;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을 공식 표명하고 우선 러시아 주요 은행들, 또 이들의 자회사와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동 방송시간은 총 1분 57초로 방송화면 중 방송 시작 1분 23초부터 약 1~2초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작은 글씨라 모르고 지나쳤으나 주변의 몇몇 지인들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영상을 캡처하여 확대 확인하니 해당 부분에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작은 글씨이지만 시청자들이 볼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박찬재부위원장)</p>	<p>우크라이나 관련 리포트 자료 화면 중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된 것은 작은 글씨의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영상을 편집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 각종 문자나 기호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으며 이후 방송 시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뒤늦게나마 부적절한 부분을 인식하고 화면을 수정하였으며 해당부서에 주의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lt;22.3월 조치&gt;</p>	<p>'22.3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1. 01. 01.~ '22.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전)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맨 위원	-	18.7.1.~22.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전)닐슨컴퍼니코리아 사회공공팀장	-	21.11.01~23.10.31
김창숙	1973.3.26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전)송실대학교 초빙교수	-	19.1.1~22.12.31
안호림	1977.7.30	(현)인천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전)경기대학교 시간강사	-	21.01.01~22.12.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지방선거와 관련된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모 전문편성채널에서 방송교육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교수가 진행자로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된걸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tv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 (권혁남위원장)</p>	<p>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마다 후보로 나서는 분들을 패널에서 제외하기 위해 잘 가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스스로 그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출연하는 패널 중에서 지방선거나가는 것으로 파악된 분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출마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패널 출연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p>	○		
보도	<p>지난 회의에서 언급한 '과학의 달' 관련 기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4.20)까지 보도된 4월 '과학의 달'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출근길 인터뷰'에서 관련 행사를 소개하는 정도로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걸음걸이 분석기술 고도화, 기술유출 관련, 스마트팜 기술, 서비스로봇,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상당수 보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과학기술 관련 뉴스는 속성상 어렵고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사화해서 보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해합니</p>	<p>과학 보도를 더 다양하고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도 많은 점을 감안해 실생활과 연결시켜 알기쉽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다. 하지만 과학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자를 채용해서 전담토록 한다면 보다 의미 있고 좋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문해주위원)				
보도	4/5일 뉴스 일기 예보에 한반도 지도에 화살표로 기류를 표시한 것이 좋았는데, 혹시 화살표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않으면, 기류 속도에 비례해서 기류 화살표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정의식위원)	관련 취재 부서에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기예보 기류 화살표 두께 조절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상팀의 그래픽 담당자와 가능한 건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223회 : 나이, 낮춰야 하나? 심판대 오른 촉법소년, 제목만 보았을 때는 촉법소년 연령을 쟁점으로 다루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용에는 가해자가 소년일 때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없는 현행 소년 사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방송에서 소년사범 관련 예산에 비해 피해자 지원 예산이 적다고 비교하였는데 피해자 관련 예산이 적다는 문제를 부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소년사범에게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올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소년사범의 경우 재범방지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범방지는 소년 사범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범죄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예산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주간 시사 제 작물인데 요즘 부쩍 질이 좋아져서 기대를 하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 보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소년 얼굴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다가 보호자 얼굴을 보호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연자 보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였는 장면이 있는데, 청소년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였지만 보호자의 얼굴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그대로 노출되어 방송 후 문제가 되진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향후에는 가족의 얼굴도 모자이크하여 주변 사람들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연령 아동 청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고, 흉포화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는 것도 스페셜에서 다루면 좋겠습니다.(이현숙위원)				
보도	지난 3월31일 고용브리핑 365 코너에서 “중고차 시장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 확정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서 기자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보도하였음, 동 보도에서는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및 최종 확정된 내용과 과정,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해외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중고차 시장 사례 등 다양한 내용들을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하여 매우 유익했음, 다만,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생계형적합업종”에 대한 개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도로 이해하고 설명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소 부적절했음, 보도에서는 중고차가 이미 2013년에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금년에 다시 재지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13년 지정된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고 금년에 지정된 것은 “생계형적합업종”임,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자율적으로 지정운영 하는 것이고 “생계형적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팩트에 기반 해야 하는 보도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입법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임, 중고차는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되다가 6년 시한 만료되고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 된 후 생계형에 적합한가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것임, 두 개의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취지나 심의 절차, 위반시 처벌, 구속력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 사용할 필요가 있음요가 있음.(유환익위원)				
보도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보도 아쉬움> 지난 4월15일 거리두기 해제 발표와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보도하면서 25일부터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설명하였음. 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인하했을 때 확진이 되어도 7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있었으나 2급 감염병으로 인하되었을 때 바뀌는 내용이 격리 여부만 있는 것인지, 다른 방역 지침의 변화는 없는지, 특히,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급 감염병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인지 등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했으면 비전문가들인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유환익위원)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강등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상세히 잘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가장 큰 것은 7일간 자가 격리가 없어지고 재택치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같은 개별 방역 조치와 직접 연계된 것이 아니라 격리와 치료방식 수위 결정에 큰 비중이 두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을 담아서 리포트로 충실하게 소화했습니다. 시청자들이 헛갈리는 부분이 없도록 자세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장애인배우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 수상 보도 관련 "장애인 역할은 장애인" ...오스카 품고 주인공 우뚝 (2022.04.02.), "장애인도 연기합니다"...국내영화계현실은? (2022.04.02.) 아카데미상 수상관련 보도는 수상자나 수상 작품 위주로 단편적으로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영화제 수상관련 보도이후에 곧 이어서 우리 영화계의 현실을 대비하여 보도한 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분이 참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즘에 이런 보도는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보도자세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도를 계속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정경모위원)				
보도	지난 4.7일 저녁과 8일 새벽, 연합뉴스TV에서 단독보도된 '생활고에.....초등생 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엄마'라는 기사 관련입니다.기사가 단독으로 써의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언론사가 취재하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일 관련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도 인터넷 기사로 다뤘고, 연합뉴스TV에서는 다른 언론사보다 다소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날 기사는 단독보도라기 보다는 시 간적으로 앞선 속보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물론 속보성도 단독보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보도라 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을 심층 취재해 진실을 밝히거나 사회에 큰 반향을 미치는 보도에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7일 저녁 '단독보도' 자막을 띄우고 속보성으로 앵커가 전했음에도 다음날 새벽 취재기자가 현장상황과 이웃들의 반응까지 취재해 다시 한번 리포팅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단독 기사 문제는 시청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으려면 사회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고 기자의 노력도 같이 덧붙여져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한 단독 기사를 보면 사회적 가치보다 기자의 노력 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공급자, 그러니까 기자보다는 수용자, 즉 시청자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독'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보도가 자칫 자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친모의 자녀 살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건의 실체보다 살해된 자녀가 SNS 프로필에서 생전 웃는 얼굴과 이웃의 반응까지 취재해 보도한 것은 오히려 다소 자극적이고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김희중위원)				
보도	어르신 또 고령자 사고율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특히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이 횡단보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지금 보는데 거의 80%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기가 노란색 흰색 이렇게 해서 여기로 눈에 띄게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 불과 1~2m 앞에 저기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건너서 그거에 대한 좀 기사도 한번 기사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천경숙위원)	어르신들이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을 어린이 사고 집중 예방의 달로 삼아 캠페인성 보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